

탐·진·치 三毒心, 연기법으로 파악해야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10)

분노는 탐욕과 맞물려 있는 일종의 부정충동이다. 모든 욕구가 해로운 것은 아닌 것처럼, 모든 부정충동이 해로운 것은 아니다. 무지와 탐욕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부정반응은 진리에 눈뜨게 하여 깨달음의 토대가 된다.

탐욕은 그것을 발생시키는 조건들에 의거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탐·진·치 맥락에서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발생조건을 주목해야 한다. 분노를 발생시키는 핵심조건은, '불변의 독자적 자아를 확립하려는 노력과 신념에 대한 위협'이다. 분노는, 불변자아에 대한 기대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고, 두려움이며, 그 위협과 장애들을 배제·부정하려는 충동이다.

달리 말해, 탐욕 추구가 방해받는 것에 대한 반발이 분노이다. 공격, 폭력, 화, 시기, 질투, 증오, 원한, 한탄, 절망감 등 다양하게 모습으로 표현되는 분노는, '탐욕 충족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부정반응'이다.

분노는 탐욕의 장애물에 대한 부정반응이므로, 분노가 발생하는 계기도 '감관 쾌락·소유·비교'라고 할 수 있다. 감관 쾌락의 강도를 높이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쾌락탐욕이 좌절되거나 방해받을 때, 인간은 속 깊은 분노를 느낀다.

어떤 감관쾌락에 대한 욕망이 방해받거나 좌절될 때, 인간은 지속적으로 자아의식적인 '개념적 자아감에 대한 위협이나 훼손'을 경험하게 되어 강하게 반발한다.

소유를 통해 불변자아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 보려는 소유탐욕의 충족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분노가 발생한다. 자신의 소유탐욕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키는 대상을 만날 때 분노가 솟구친다.

비교의 우월자아감을 통해 불변자아에 대한 헛된 기대를 채워보려는 비교탐욕의 충족과정도 분노가 장악한다. 그 분노는 시기, 질투, 음해, 우월의 교만과 추월의 두려움, 열등의 적개심과 자학 등으로 나타난다. 우열을 다투는 경쟁에서는 팔꿈치로 밀어내는 '배제의 분노'가 경쟁과정을 지배한다.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 자들을 향한 시기과 질투, 미움과 증오심, 억울함과 복수심, 하위로 밀려난 자들의 마음을 채운다. '박탈의 분노'이다.

또한 우위를 차지한 사람들은 보복기회를 노리는 하위 사람들을 향해 적대감을 품는다. '우월의 분노'이다. 이 우월의 분노는, 하위자들을 경멸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교만과 공포의 적개심이다.

4. 마무리

붓다의 깨달음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붓다는 자신의 모든 언어를 '연기적'으로 펼친다. 따라서 붓다와 대화하려는 사람들도 그의 모든 언어를 '연기적'으로 읽어야 한다.

붓다는 탐욕·분노·무지에 대해서도 그 발생과 소멸의 조건을 밝히는 '탐·진·치 연기 설법'을 설하고 있다. 세 가지 느낌이 탐·진·치의 잠재성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며, '아름다운 표상'·'적의 표상'·'표상을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 탐욕과 분

붓다의 깨달음 근본은 연기법

다양한 층위의 연기적 이해로

탐·진·치 생성·소멸 알 수 있어

노의 발생 및 증폭이 조건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 무지의 발생·증폭 조건으로 설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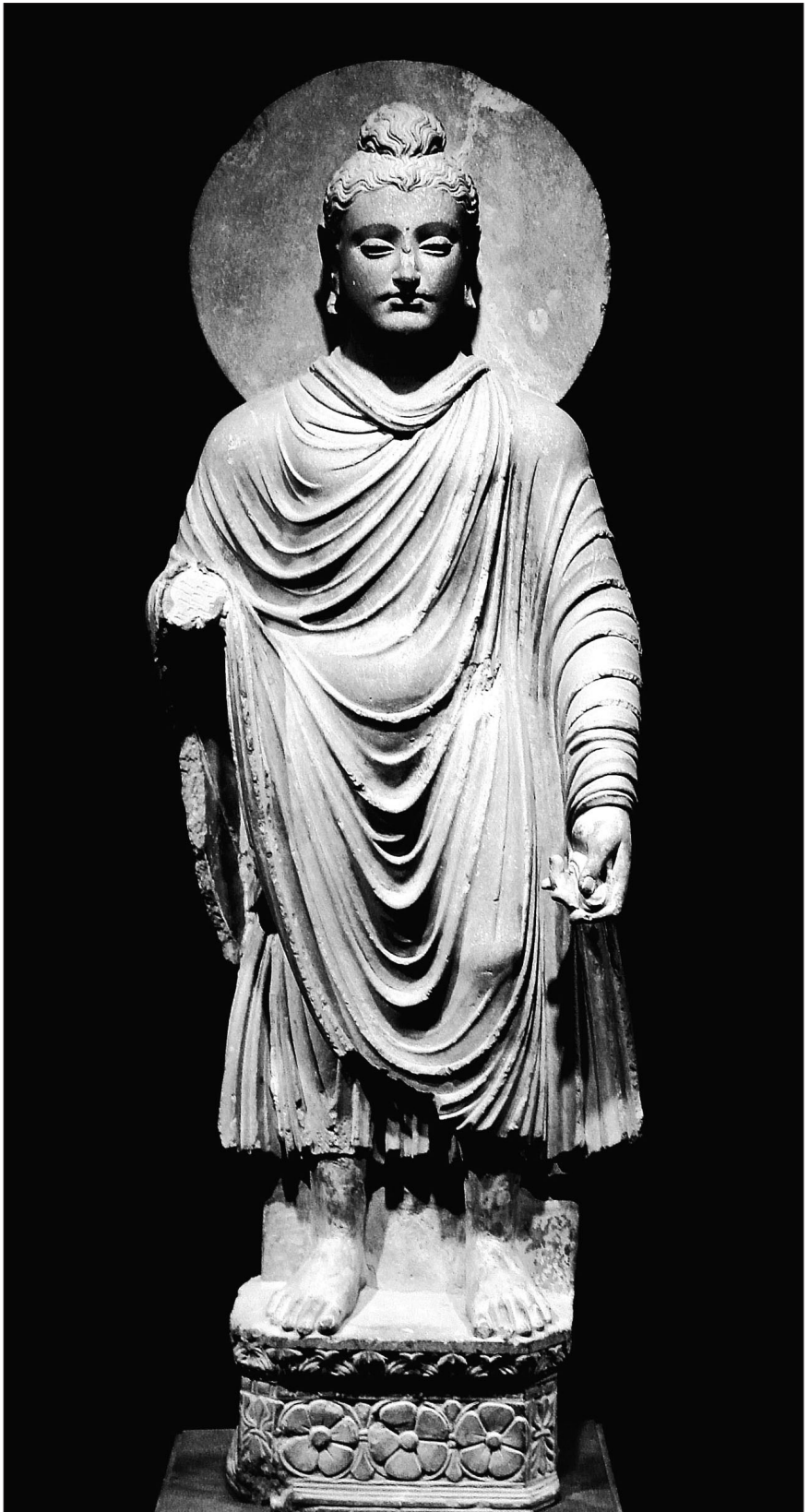
또한 멸(滅)연기·명(明)연기를 구현하는 다채로운 교설과 수행법이 탐·진·치의 소멸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붓다의 탐·진·치 연기교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와 좌표에서의 '연기적 이해'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삶에 새겨진 탐·진·치의 결(縛)과 무니(紉)를 철학적 시선에서 음미해 보았다. '지금 여기'의 관심으로 탐·진·치를 '연기적'으로 읽어보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붓다 진리관의 두 가지 철학적 기초를 '두 층의 경험주의'와 '실존 실용주의'로 압축시켜 탐·진·치 문제와의 연관성을 읽어보는 동시에, 불변자아의 환각과 탐·진·치 현상의 연기적 관계를 읽어 보았다.

붓다의 실존 실용주의는 '탐욕·분노·무지를 축으로 삼는 삶의 실존적 오



간다라 양식의 불상.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에 기반하고 있다. 연기를 통해 탐진치 삼독심의 생성과 소멸을 이해해야 한다.

염과 왜곡을 치유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태도', 다시 말해 탐욕·분노·무지를 조건으로 수립된 삶의 실존상황에 적용하여 탐욕·분노·무지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만 진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태도이다.

또한 경험 가능한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해 진실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 탐구의 범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붓다의 경험주의이다. 붓다의 경험주의는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층은,

진리 주장은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층은, 진리 주장은 '온전한 경험'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 혹은 경험 가능한 것들은 '온전한 것과 왜곡된 것'의 두 유형이 있으며, 진리와 하나 됨은 '온전한 경험'으로써 구현된다는 것이, 붓다 경험주의의 궁극적 지향이다.

그리고 탐·진·치는 근원적으로 자아 환각의 보충충동과 연관시켜 읽을 수 있다. <끝>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람이 신(神)이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다. 종교의 존재는 신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신앙은 그러므로 사막다리 오르듯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한다.

예전부터 사람의 필요에 의해 신과 길은 만들어졌다. 사람의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신이 만들어졌고, 신의 이름이 지어졌으며, 신의 형상이 그림이나 조각품으로 만들어 졌던 것이다. 가까운 예로, 아파트 문화가 있기 이전 마을의 주민들이 머무는 집엔 빨감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떡을 솥에서 쪄내어준다.

그러다보니 빨감의 질량에 의해 밥이 죽이 되고, 떡이 설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게 되었든 것이다. 하여, 막연하게 부엌의 신을 만들게 된다. 이룸하여 조왕신이다. 새해 설날 무렵 또는 가정마다 다르긴 하나, 음력 초하루 날엔 촛불을 밝혀 조왕님께 치성 드리는 일도 있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 문화와 조리기구의 발달로 인해 빨감이 아닌 가스로 음식을 조리하게 되고 떡은 떡집에서 만들게 되었다.

하여 성경에도 등장하듯, 같은 양의 빵과 생선이 사양하면 남고, 다투면 부족할 터이다.

불교에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로 설명한다.

또한 팔정도(八正道)라 하여 바른 관찰(正見), 바른 생각(正思),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명상(正念), 바른 지혜(正定)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실행에 옮기기란 벽치고 험겨울 것이 뻔한 일이다. 다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긍정적인 착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할 터이다.

사랑에도 정답이 없듯 행복에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법이다. 눈높이에 따라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사막다리의 높낮이에 따라 시야가 트일 수도 막혀 있을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불제자라면 누구나 달달달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까지는 경의 이름이니 제쳐두자.

'관자재보살이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

비어있을수록 개운하고 편안하다 집착 벗어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젠 조왕신은 자취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룸마저 잊혀져 국어사전에서나 조왕신이 박혀있다. 화장실을 예전엔 칩간이라 불렀는데 이곳을 관장하는 신도 사람들이 만들게 된다. 이룸하여 '변소 축(?)'에다가 '귀신(神)'을 붙여 '축신(?)'이라 하였다.

부엌문화가 바뀌듯 화장실도 거실에, 문 하나 사이로 붙어 있다. 수세식은 물론 비데 문화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당연히 축신은 줄어들어 누구 한사람 찾지 않는 죽은 신이 된지 오래이다.

이란의 예언자였던 조로아스터교는 그 세력이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이제는 겨우 유적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페르시아인 마니가 창시한 마니교도 이 름만 남긴 채 사라졌다. 참고로 자라투스 트라는 조로아스터의 영어 명임을 밝혀둔다.

자, 이쯤해서 사람이 사는 이유 행복에 대해 렌즈의 프리즘을 당겨보자.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인데 그 느끼는 감정 변화는 가치 기준만큼 사람마다 다양할 터이다.

다만, 행복이 느낌으로 왔다가 느낌으로 사라질 터인데 머무는 기간은 현연된 병사의 체질만큼이나 길고 짧음이 다를 수 있다.

정진을 할 때, 오온(色, 受, 想, 行, 識)이 다 비어있음을 관조하여 일체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느니라'로 반야심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오온(五蘊)은 물질(色)과 받아들임(受), 분별 망상(想), 온갖 행위(行), 관습의 의식화(識)로 중생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이 오온(五蘊)에 집착할 것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는 해탈자이자 자유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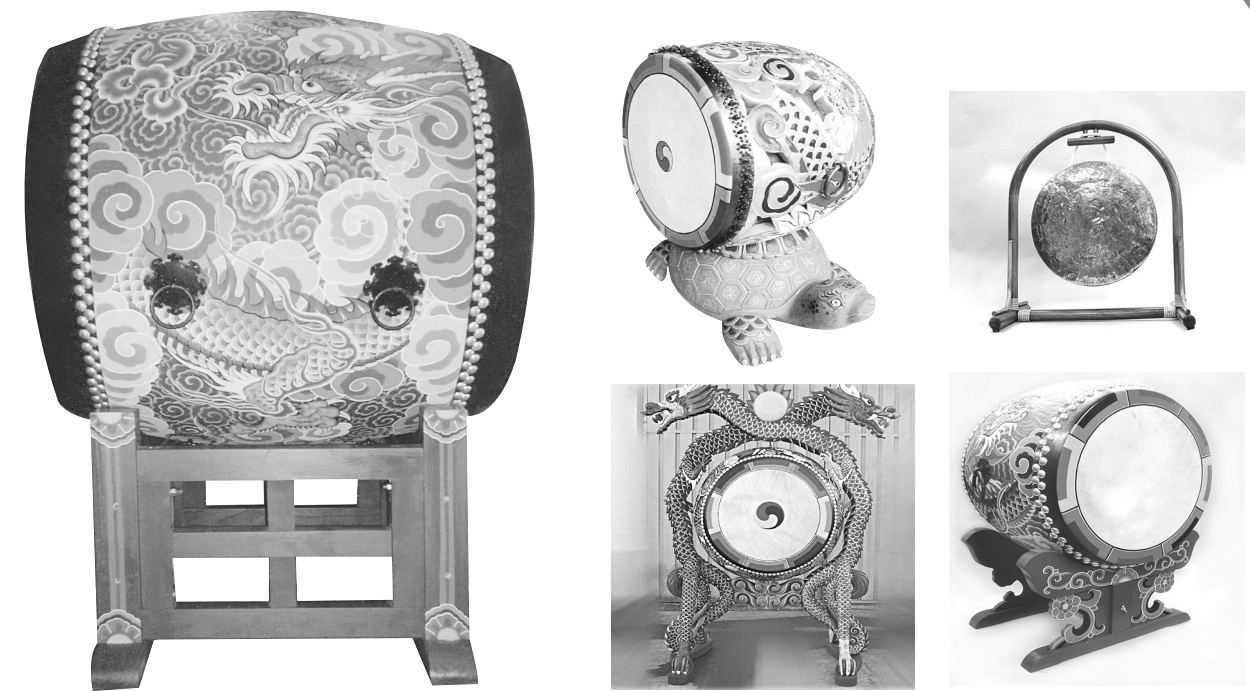
깨달음을 완성한 행복을 누리는 승리자이다. 신앙인들이 날이 갈수록 좋아들거나 섬기는 신이 그 둘레를 넓혀간다면 그는 정신이탈의 몽유병 환자처럼 어둠속에서 윤회를 거듭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될 터이다.

부정적인 착각보다는 긍정적인 착각으로 머물고 집착하는 소유욕에서 벗어나며 살 일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여 가고, 끝내는 사라지는 존재들이다. 비어있음이 개운할수록 비어있으면 편안하다.

집착을 벗어 버리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신이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부처이다. 모시고 섬기는 신이 많아 머저리 병신으로 살기 말일 터이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빙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동,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